

민선 7기 '100일'... 경기 지자체 키워드는 복지·위민·소통

지자체, 미래 로드맵 앞다퉀 내놔 추경예산 거의 통과... 행보 '훈풍'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7기 경기 광역·기초단체와 교육청 체제가 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석달여간 도내 지자체의 행보를 관통한 주요 키워드는 '무상복지 확대, 참여민주주의 강화, 위민정책 확대'로 요약된다.

임기 4년을 채워갈 밑그림을 그린 지자체들은 임기 초반 지역의 미래 로드맵을 앞다퉀 내놓아 지역 실정에 맞게 제대로 뿌리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 확대

민선 7기 출범 전 경기도정의 성과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성남형 복지'가 도 전역에 제대로 안착할지에 달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지난 100일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3대 무상복지공약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 기간으로 평가된다.

임기 초기 도의회와의 협치 속에 이 지사의 도정철학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 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안성병원은 술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공개한다. /연합뉴스

뤄졌고 공약 예산으로 불린 1차 추경예산도 대부분 사업비가 원안 통과돼 도 행보에 훈풍이 불고 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는 내년부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지역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은 일찌감치 확정됐다. 고교 신입생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만 남았다.

도는 이 지사의 공약인 '생애 최초 국민연금', '31개 시·군별 지역화폐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위민정책 확대

경기도와 수원, 용인, 군포 등 도내 주요 기초단체는 내년부턴 생활임금 지급 1만원 시대를 연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조례에 따라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저임금 권장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내년에 안양시 730여명, 수원시 600명 내외, 용인시 410여명, 군포시 200여명 등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각 지자체는 예상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도는 이달부터 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들어갔다.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다 보니 환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을 어떤 식으로 해

결하느냐가 이 정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참여·소통 강화

지난 7월 취임한 민선 7기 지자체장 중 상당수가 시민과의 소통, 주민의 행정 참여 확대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철학이 반영된 공약 중 하나가 '주민 청원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넘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원하면 각 지역 단체장이 답변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5만명 이상 청원하면 답변하는 '경기도 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성남시는 5000명 이상 청원에 답하는 청원 게시판 운영을 이달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소통하면 해답이 나오고 대화 속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출범 100일 된 민선 7기 단체장들이 4년 임기 동안 어떻게 미래 로드맵을 실현해나갈지 행보에 주목된다.

/경기 의정부=김승일 기자 kimsy@metroseoul.co.kr

광주·전남 관광 할인카드 '남도패스' 판매

숙박·교통·관광 통합 할인 제공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숙박·교통·관광시설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는 '남도패스'가 발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중순부터 통합관광 할인카드인 남도패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남도패스는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 교통, 관광시설 통합 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결제형 선불카드다.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료, 렌터카 서비스 등 최대 50%까지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속철도(KTX) 주요 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면 KTX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관광지, 숙박시설 등 80여 곳의 카드가

맹점에서도 평균 30% 수준에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한다.

순천 승마장 등 40%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양 시·도는 내실 있는 할인가맹점을 내년에는 2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코나아이㈜와 협력해 전국 코나카드 할인가맹점인 스타벅스, GS25 등 260만 매장에서 즉시 할인 또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도패스는 앱카드와 실물카드로 발매된다.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남도패스 카드는 광주·전남지역을 더욱 가깝고 실속있게 여행하는 데 필수 수단이 될 것이다"며 "이용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정조대왕

'2018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렬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을 출발해 팔달문을 지나 용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 행남사~삼진물산 진입도로 개설 추진

예산 15억 확보... 도로개설 공사 박차

목포시가 행남사~삼진물산(산정농공단지)을 연결하는 도로(길이 510m, 폭 15m) 개설 사업(총사업비 42억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 1987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2012년 행남사 입구 일부 50m 도로가 개통됐으나 나머지는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는 올해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행남사~세안병원 1공구 구간(길이 166m)의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한다.

국도1호선인 고하대로는 목포대교 개통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급증한 상황에서 내년에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하면 차량 통행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 고하대도에서 산정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 북항의 대단지 아파트 등으로 진



입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먼 거리를 통행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비용 절감,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 고하대로 교통량 분산 등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공구 구간을 우선 준공하고 잔여 구간(길이 344m) 도로개설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광주시 감사, 컨설팅 감사 16건 적발

설계·시공 부적정처리 위반사항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에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과 준공된 현장 위주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와 시공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시 분청(환경생태과) 1억원 이상과 자치구 1000만원 이상 규모의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구 쌍촌동 사면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여건과 다르게 조사 보고해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108m를 폐지·결정 ▲송화마을 탄소저감 공공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법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구조 변경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서 12개 공종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됐다. 또한 ▲광산구에서

는 관급자재인 태양광 설비를 제작·구매하면서 납품기한이 지났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동구 다목적체육관건립 공사도 당초 설계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를 변경해 2억원 가량의 고가 소나무를 심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주의·시정조치하고, 관계 공무원 등 2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5억 5500만원의 재정상 처분(회수 및 감액)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했다"며 "올 하반기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한 시공 위주도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오종일 기자

광주광역시

2호선 공론화 업체 선정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전 과정을 수행할 업체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공론화 전 과정을 수행할 업체로 ㈜마크로밀엠브레인(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과 3억 7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론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공론화지원단(시민소통기획관)이 제안서를 제출한 3개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정량적 지표, 정성적 평가)와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의 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마크로밀엠브레인(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앞서 공론화지원단은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하고, 28일 기술제안서를 받아 10월 1일 기술평가와 2일 가격평가를 종합하는 절차를 거쳤다.

/광주=오종일 기자